

진급 및 보직신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자주국방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진급하신 분 보직 바꾸신 분 축하드립니다. 자리가 크고 작고 이런 평가나 느낌이 있겠지만 어느 자리나 열심히 일해서 보람 찾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새로운 출발 거듭 축하드립니다.

또 각별히 당부도 드립니다. 그 동안 잘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군 달라졌으면 그런 희망도 말합니다. 정치도 하다보면 맨날 달라지라고 국민들한테 재촉 받지만 군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짜증스럽게 생각 마시고 뭔가 새롭게 하면 여러 가지로 국민의 신임도 높아지고 여러분도 보람도 커질 것이고 여러 가지 성과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과 마음에 맞춰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공감하고 계신 군 내부 운영 조직도 그렇거니와 제가 대통령이 된 뒤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막강한 군 조직과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문제에 관해 누가 대한민국 자주국방하냐고 물어보면 ‘물론 그렇다’ 라고 대답이 망설여집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대해 저를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그만큼 이익도 있어서 저는 주둔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 주둔은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자주국방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대북 억지력이 지금까지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한국군과 미국군이,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어떤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당장 큰 위협에라도 노출 돼서 스스로의 안정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와 같은 주한미군의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태세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들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현대화하고 군인사 합리화하고 군의 사기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도 다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군만을 믿고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군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약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뒤받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하고도 항상 서로 걱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뒤를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근간이 되시고 또 그런 태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